



5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 미디어교육 협력기관 지정 위탁 협약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음 1월 8일) 제272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도-의료계, 안전한 백신접종 힘 모으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인력 지원 협약 의정협의체 구성·운영

전북도와 의료계가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성공적 이행과 국민의 안전, 안심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3개 의료단체 대표(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 이병관 전북도병원회장, 안옥희 전북도간호사회장)는 전북도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협약과 함께 도와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오는 28일 백신접종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의정협의체'는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사회장, 전북도병원회장, 전북도간호사회장으로 구성돼 정부의 백신 공급에 맞춰 단계별 접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업무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인력 지원 업무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 이병관 전북도병원회장, 안옥희 전북도간호사회장이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옥희 전북도간호사회장, 백진현 전북도의사회장, 송하진 도지사, 이병관 전북도병원회장)

특히, 백신접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공공의료인력 지원만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만큼, 민간의료인력 지원과 백신접종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에 동참한 모든 도민과 헌신적 자세로 시종일관 분부하는 의료진 덕분에 최근 대규모 환자 발생 없이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

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길인 만큼 도와 의료계가 조금 더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도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도 나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주사기 비교 시연중... 문 대통령, 군산 소재 품림파마텍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품림파마텍을 방문해 일반 주사기와 LDS 백신주사기 비교 시연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북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맞손'

도, 자산관리공사와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프)와 전북도는 18일 '전북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성유 캠프 사장이 참석했다.

캠프는 1962년 설립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신용회복 지원, 국공유 재산의 관리와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도는 캠프의 기업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캠프는 전북도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민간 자본투자 연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와 캠프, 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이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의 일자리 참여기업이 민간 자본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확

고한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돼 도와 캠프, 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전기차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주)명신은 2019년 인수한 군산의 GM공장서 전기차 위탁 제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투자 유치를 모색했고, 지난 2월 캠프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주) 로부터 550억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0월 24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주)명신 공장에서 양대 노총 군산지부와 전기차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의 노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군산시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이 붕괴돼 지역경제가 침체되던 가운데,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에서 미래 전기차 중심의 신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유호상 기자

특히,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로 대기업이 떠난 곳에 중견·벤처 기업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로 계획됐으며, '노사상생·원하청상생·지역사회 상생'이라는 3대 핵심 상생요소를 주요 가치로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동차 완성차 업체 4개사(주)명신,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엘피에스코리아)와 부품업체 1개사(주)코스텍)가 참여 중이다.

2023년까지 3,528억원을 투자해 1,106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1만9,844대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밸류체인 연계사업 영업이익은 효과 총액 3,3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주)명신의 550억 규모 민간자본 투자유치 성공으로 인해 자금공급 등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상 기자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 '공동협력'

도교육청, 경남교육청과 협의... 사업 공동 발굴 등 논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경남교육청과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8일 8층 감사협의회실에서 경남교육청 청렴업무 담당자들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청렴·반부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청렴 사업 공동 발굴, 상호 컨설팅 지

원 등 공동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부패방지 지킴이 우수사례 공유 ▲2021년 청렴·반부패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기타 협력 사항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공공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예방과 권

살팅 중심의 감사 정책을 이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 1위를 포함 지난 5년간 우수 등급을 유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도 향상, 부패취약분야 단계별 청렴 활동 강화, 고객 중심 청렴정책 활성화로 청렴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계획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교육 현장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청렴·반부패 정책 공동협의를 통해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개발공사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